

로버트 바노이 , 대선지자, 강의 7

이사야 8:11-10:32

이사야 8:11-9:3 이사야 8:11-22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권고

우리는 이사야서 8장 마지막 부분에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권고(11-22절)” 를 보고 있습니다. 8장 21절과 9장 2절과 3절 사이에서 당신은 우울하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이 기쁨과 즐거움으로 바뀌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8장 21절을 보면 “그들이 심히 괴로워하며 주릴 것이요. 그리고 그들이 배가 고프면 초조해하며 그들의 왕과 그들의 하나님을 저주하고 위를 바라볼 것입니다 . 그들이 땅을 바라보면 환난과 흑암과 고통의 흑암이 있을 것입니다. 그들은 어둠 속으로 쫓겨날 것입니다.”

기쁨에 대한 고민 장 구분이 제대로 배치되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8장 22절은 중단 없이 바로 9장 1절로 이어진다 . “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처음에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을 가볍게 괴롭게 하시고 그 후에는 그 환난 중에 있었던 암담함은 그치지 아니하리라” 요단 건너편 바다길과 이방인의 갈릴리로 말미암아 그에게 더욱 심한 괴로움을 주었느니라. 어둠 속을 걷던 백성이 큰 빛을 보았습니다!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는 자에게 빛이 비취도다. 당신은 나라를

번성하게 하시고 기쁨을 더하게 하셨습니다. 사람들이 노략물을 나눌 때 기뻐하듯이 그들은 추수할 때의 기쁨으로 당신 앞에서 기뻐하였습니다.” 보시 다시피, 8장 21절에서 9장 3절로 이동하여 어둠과 어둠과 고통에서 기쁨과 큰 빛으로 이동합니다.

역사적 배경 열왕기하 15:29-30 9장 1절에 언급된 스불론과 납달리 지역은 앗수르 군대가 처음으로 이스라엘 땅에 쳐들어온 북부 팔레스타인 지역입니다. 열왕기하 15장을 보면, 29절에 “ 이스라엘 왕 베가 때에 앗수르 왕 디글랏 빌레셀이 와서 이온 과 아벨벤 마아가 와 야 노아 와 게데스 를 점령하고”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 그리고 하조르. 그는 길르앗과 갈릴리와 납달리 온 땅을 빼앗아 앗수르로 옮겼느니라.” 따라서 티글랏빌레셀이 처음에 침공한 곳은 북왕국의 북쪽 지역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베가 시대 의 일임을 알 수 있는 열왕기하 15장 29절입니다 . 그리고 30절에 보면, “엘라의 아들 호세아가 르말랴 의 아들 베가를 대적하여 반역 하여 그를 쳐서 죽이고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최종왕의 전환이다. 다마스쿠스는 기원전 732년에 함락되었는데, 이는 시리아 -에브라임 전쟁 (BC 734) 이 일어난 지 몇 년 후였습니다 . 그러면 북왕국은 어떻습니까? 베가 에서

호세아로의 전환은 기원전 732년에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시리아인들은 이스라엘 북부의 같은 지역으로 들어왔습니다.

이사야 9장 2-3절 - 임마누엘의 재림 그러나 9장 2절에서 읽은
것은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3절에서 기쁨과 즐거움을
말함이라. 문맥에 비추어 볼 때, 다가오는 기쁨과 7장에서 예언된
임마누엘의 출현 사이에 어떤 연관성이 있어야 한다고 결론을 내리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임마누엘은 다윗의 왕좌에 아하스를
대신할 사람이었습니다. 신약성경을 보면 예수께서 여기에 설명된 바로
그 지역인 갈릴리에서 공생애를 시작하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 13~16절은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이르시니라” 고 말합니다. 그리고 14절을 보면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바다
길과 요단 저편 이방의 갈릴리니라 하신 것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고
했습니다. 어둠 속에 앉아 있던 사람들이 큰 빛을 보았습니다.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빛이 비취었도다” (이사야 9장 1~2절)

. 그러면 3 절 에서는 그 날 백성의 기쁨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
주께서 이 나라를 번성하게 하시고 기쁨을 더하게 하셨나이다. 그들은
추수할 때 기뻐하고, 사람들이 탈취물을 나눌 때 기뻐하듯이 당신

앞에서 기뻐했습니다.” 그것은 제가 지난 분기에 성경 예언의 불가사의한 성격을 보여주기 위해 사용한 예언 이었습니다 . 만약 당신이 이 예언을 읽었다면, 만약 당신이 그것에 대한 신약성서의 언급을 가지고 있지 않다면, 당신은 “여기서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걸까?” 라고 궁금해할 것입니다. 신약의 성취를 볼 때, 그것이 역사적 상황, 앓수르의 도래, 그리고 궁극적으로 그리스도의 오심과 관련하여 오는 기쁨과 빛과 어떻게 관련되어 있는지 아주 분명하게 볼 수 있습니다.

이사야 9장 3절에서 왜 기쁨이 있습니까? 3가지 이유 그런데 왜 3절에 기쁨이 있습니까? 자, 4절, 5절, 6절을 읽어 내려가면서 세 가지 이유가 제시됩니다. 세 가지 이유는 각각 히브리어 단어 “for”로 소개됩니다 . 4절에 보면, “주 께서 그의 무거운 멍에와 그의 어깨의 지팡이와 그의 압제자의 막대기를 꺾으시되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으니” 라고 했습니다. 5절, “ 용사의 싸움마다 요란한 소리와 피 묻은 옷이 있거니와 이는 불과 뿔감과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 그리고 6절, “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났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으니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났음 이라 . 그리고 정부가 그의 어깨 위에 있을 것이다.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이다.” 그 절정은 확실히 6절에 있습니다.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났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으니.” 여기서 흥미로운 점은 히브리어에서는 두 동사 모두에 완료 시제가 사용된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있는 동사는 *올라드 입니다* . 푸알이 완료 되었습니다 . “한 아기가 우리에게 태어났고 우리에게 아들이 나 섰으니 주어졌다” - 완료형인 *natan* 에서 유래. 이것은 선지자가 그것을 보고 성취를 확신하여 마치 그것이 이미 일어난 것처럼 말하는 예언적 완전성입니다. 번역되었지만 확실히 미래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NIV는 이를 현재로 표현합니다.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났고 그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기 때문이라.”

그래서 절정은 6절에서이고, 다시 이사야 7장 14절과 마찬가지로 메시아 예언에 빠져들게 됩니다. 영은 “하나님께서 무거운 짐과 압박의 멍에를 꺾으셨고, 용사들의 무기와 의복이 파멸되었기 때문에 그 무거운 짐과 압박이 없어져 하나님의 백성들 사이에 큰 기쁨이 있게 되었으며, 이러한 축복의 근본 이유는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앗수르의 막강한 원수와 시리아 -에브라임 연합 과는 대조적으로 , 어린아이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구원을 가져옵니다.”

6절에서 그 아이에게 주어진 이름을 보면 확실히 그것은 보통 인간에게 적용되는 이름이 아닙니다. 나는 여기서 당신이 신성을

암시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임마누엘의 경우보다 훨씬 더 분명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사야서 7장 14절에는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라는 말씀이 있는데, 여기서 임마누엘, 즉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이름은 신성을 의미합니다. 여기 9장 6절에는 이 아기가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시는 아버지” 라는 가르침이 *있습니다*. 하지만 인간의 모습으로 . 그러므로 여기서 당신은 성경의 위대한 가르침 중 하나를 접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의 아들의 인격으로 인간의 모습으로 오실 것입니다.

학생 질문: 4절과 5절에서 히브리인의 관점에서 아버지가 가서 바벨론의 명예를 꺾을 것이라고 보는 이유가 바로 이 부분입니까?

Vannoy의 답변: 아마도; 확실히 당신은 그런 식으로 읽을 수 있고, 그렇게 읽는다면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4절과 5절을 정확히 어떻게 해석하면 문자 그대로의 의미인지 비유적인 의미인지에 대한 질문이 다시 시작됩니다. 하지만 저는 이런 맥락에서 그것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분명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J. Barton Payne과 같은 사람은 그것을 재림과 아마겟돈으로 받아들이지만 나는 그렇게 생각하고 싶습니다. 아주 문자 그대로의 의미에서는 그것도 가능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흐름이 안 맞는 것 같아요. 흐름은

앞장 끝부분의 앓수르의 압제에서 9장 1절로 옮겨져 기쁨을 가져다주는 초림의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옮겨가는 듯하다. 그리고 만약 그렇다면, 4절과 5절을 죄의 억압에 대한 비유로 받아들여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나는 3절에서 6절로 흐름이 이동하고 그 사이에 비유적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그것을 비유적으로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진정한 희망은 이 사람이 오는 데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시리아와 북왕국이 유다를 공격하는 것이 성공하지 못할 것이라는 당면한 상황에 적용되는 위안의 말씀도 배제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기쁨의 궁극적인 기초는 아닙니다. 그것은 장기적으로 아이가 태어나는 것입니다.

이사야 9:7 다윗의 통치

9장 7절에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리라. 그는 다윗의 왕좌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다스리고 지금부터 영원히 정의와 정의로 그것을 굳게 세우실 것입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이 이를 이루시리라.” 7장 13절로 돌아가면, “다윗의 집이여 들으라.” 아하스는 다윗 가문의 무가치한 대표자였지만, 여기 9장에서 이 아이는 다윗의 왕좌에 앉아 평화와 공의와 공의를 세울 것입니다. 그분의 정부는 전쟁과 비참함, 불의와 악을 종식시킬 것입니다. 그것은 인간의 성취의 결과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마지막 구절에서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이 이를 이루시리라” 고 설명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천년왕국과 어떤 관련이 있는가? 이제 다시, “이것이 천년왕국과 어떤 관련이 있는가?” 라는 질문을 받게 됩니다. 인용문 18 페이지를 보면 343페이지에서 가져온 첫 번째 문단에서 Young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 해석” (그는 여기에서 9장 7절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 천년왕국 동안 예루살렘에 세워질 문자 그대로의 다윗의 왕좌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거부되어야 합니다. 통치는 아이인 *율라드 의 탄생으로 시작됩니다*. 그분은 다윗의 왕좌에 앉아 영원히 통치하십니다 . 이 통치 기간을 1000년으로 제한하는 것은 '끝이 없다' 는 말씀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성서에는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리라” 고 나와 있습니다. Young은 계속해서 말합니다. “그리고 시작을 천년왕국의 시작과 일치시키는 것은 그것이 아이의 탄생으로 시작된다는 사실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이제 몇 사람이 영의 해석에 대해 논평합니다. 7절에서 “그 정사를 더하는 것이 무궁하며” , “그 정사를 이제부터 영원까지 공의와 공의로 굳게 세우시리라” 는 말씀을 읽게 됩니다. “끝이 없을 것입니다”와 “이제부터 그리고 영원히”라는 두 가지 문구가 있습니다. 나는 그 문구가 반드시 밀레니엄 해석을 배제하는지 확신하지 못합니다

. 내가 보기에는 그리스도의 왕국이 그의 초림 때 세워진 것 같고 , 영이 지적하는 또 다른 요점이 바로 이것이다. 통치는 “아이” 또는 *올라드* 의 탄생으로 시작됩니다 .

그렇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통치가 그리스도의 초림으로 시작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의 나라는 초림 때까지 온전히 이루어지지 않았고 아직 이루어지지도 않았습니다. 우리는 이미 그런 상태에 있지만 아직은 아닙니다. 일종의 상황입니다. 여기에 있지만 충만함이나 완전함이 여기에 있지 않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왕국은 더욱 완전한 형태로 임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에서 말했듯이, 그것을 파괴하려는 사탄의 시도는 실패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왕국은 파괴될 수 없습니다. 결국 우리는 고린도전서 15장 24절에서 “그리스도께서 나라를 아버지께 맡기시니 그 나라가 영원히 있으리라” 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당신이 천년왕국과 같은 것이 있다고 말한다면 첫째, 왕국의 현재적 측면이 있다는 것을 부정하거나, 둘째, 미래가 없다고 말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천년왕국을 넘어서는 왕국의 모습. 당신이 밀레니엄 같은 것이 있다는 관점을 가지고 있다면 영이 말한 것처럼 당신은 그 둘 중 어느 하나도 부정하지 않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통치가 천년왕국 기간에만 국한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나는 천년왕국 시대에 그분의

통치가 나타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현재의 표현과는 다른 순서입니다.

“끝이 없다” 는 표현은 그분의 정부를 가리킵니다. “그의 정부와 평화의 더함이 무궁하리라.” 나는 그러한 것들을 너무 구체적으로 강요하려고 노력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 말은 그분의 통치와 그분의 평화로운 왕국이 영원히 계속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사야 9:8-10:4 - 4 시의 연 각각 “그의 진노...” 로 끝남

이사야 9:7 이후에는 날카로운 단절이 있습니다. 여기가 8장과 9장 사이가 아닌 장 구분이 있어야 할 부분입니다. 7절 이후에 급격한 중단이 있고 그 다음에는 9:8부터 10:4까지가 다음 단위입니다. 따라서 9와 10 사이의 장 구분도 잘못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사야 9:8부터 10:4까지가 다음 단원입니다. 이를 하나로 묶는 것은 시의 네 연으로, 각 연은 12절 끝, 17절 끝, 21절 끝, 10장 끝 4절에서 볼 수 있는 것과 동일한 후렴으로 끝납니다 . 12절 끝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진노가 풀리지 아니하고 그의 손이 여전히 펴지느니라” 고 읽게 되며, 17절에서는 “그때에도 그의 진노가 풀리지 아니하고 그의 손이 여전히 펴지느니라” 고 말합니다. 아직도 뻗어 있어요.” 21절의 끝은 “이러할지라도 하나님의 진노가 풀리지 아니하며 그의 손을

여전히 펴시며” 이고 10장 4절은 “그래도 그 분의 진노가 쉬지 아니하며 그의 손을 여전히 펴고 계시느니라” 고 합니다. .”

이 문구의 의미는 당신이 가지고 있는 것은 이스라엘의 죄와 교만을 질책하고 이에 대해 여호와께서 북왕국에 무서운 형벌을 내리실 것이라는 선언이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심판을 노래한 시입니다. 그래서 그 문구에 담겨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고 돌아서게 해야 할 일들을 행하셨으나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이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그의 진노가 쉬지 아니하고 그의 손이 여전히 펴져 있느니라 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심판은 아직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이 죄에 대한 책망의 시, 다가올 심판의 선언임을 나타내는 후렴으로 끝나는 네 개의 연을 가지고 있습니다. 해당 부분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루지 않겠습니다.

이사야 10:5 - 심판/위로 주기가 하나님의 도구인 앓수르에게 자리를 내주다 10장 5절부터 시작하여 다음 부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사야서에서는 두 가지 주제가 강조되었습니다. 기본적으로 두 가지 주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스라엘의 죄와 하나님께 대한 반역에 대한 책망과 다가오는 심판에 대한 발표입니다. 그리고

주님께로 돌이킨 사람들에게는 위로와 위안이 있으며, 결국에는 경건한 남은 자들에게 축복이 있을 것임을 확신시켜 줍니다. 이것이 이사야가 지금까지 강조한 두 가지 사상입니다. 그렇다면 임마누엘서 7-12장에서 우리는 첫 장(1-6)에서 심판의 축복, 심판의 축복, 심판의 축복이 있음을 보았습니다. 임마누엘서에 이르면 책망의 첫 번째 주제는 아하스와 앓수르 의 동맹 과 그로 인해 일어날 일에 관한 것입니다. 두 번째 주제인 위로는 임마누엘의 오심과 경건한 남은 자들을 위한 축복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10:5에 도달하고 따라가면 새로운 아이디어가 도입됩니다. 그리고 그 아이디어는 이전에 강조되었던 다른 두 가지 주제와 함께 논의됩니다. 새로운 사상은 사악한 나라인 앓수르와 주님의 목적의 관계와 관련이 있습니다. 9절에서 “ 갈 노는 갈그미스와 같지 아니하냐? 하맛은 아르밧과 같지 아니하냐? 사마리아는 다메섹과 같지 아니하냐?” 사마리아는 이미 함락된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이 부분은 임마누엘서의 앞 부분보다 나중에 기록된 것으로 보인다. 11절을 보십시오(앓수르 왕이 말하고 있음). “내가 사마리아와 그 우상들에게 행한 것 같이 예루살렘과 그 우상들에게 행하지 아니하겠느냐.” 앓수르 왕이 말했습니다. “보십시오, 나는 이미 사마리아를 점령했습니다. 이제 나도 예루살렘을 차지하겠다.” 그러므로

사마리아는 이미 함락된 것입니다.

이사야는 악이 승리하는 것처럼 보였던 시대에 살았습니다. 아시리아는 세계에서 가장 무자비하고 사악한 침략자 중 하나를 대표합니다. 아시리아인들은 잔인함과 무자비함, 그리고 다른 민족들에게 공포를 심어준 것으로 유명했습니다. 한 작가는 앗시리아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앗시리아보다 더 비참한 민족은 없었으며, 그보다 더 포악하고, 더 탐욕스럽고, 더 보복적이고, 더 무자비하고, 그들의 범죄를 더 자랑스럽게 여기는 군주도 없었습니다. 아시리아는 그 자체로 모든 악덕을 요약합니다. 용기 외에는 단 하나의 미덕도 제공하지 않습니다. 가장 혼란스러운 시기에 여기저기에서 니네베 사람들이 그들의 신의 이름으로 저지른 공포에 비할 수 있는 공공 범죄를 발견하려면 세계 역사 전체를 조사해야 합니다. 아시리아인은 예술가도, 문학가도, 입법자도 아닙니다. 그는 약탈 조직과 막강한 군사력에 맞서는 기생충입니다.”

아시리아인들은 무자비한 민족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성공했습니다. 그들은 도시를 하나씩 점령하고 있었습니다. 이사야는 앗수르의 진군과 성공을 지켜보는 상황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10장 5절과 6절에 “앗수르야 나의 진노의 지팡이 요 그의 손에 나의 분의 지팡이니라 ” 고 했습니다. 내가 그를 보내어 위선적인

나라를 치게 하며, 내가 그에게 명령하여 내 진노의 백성을 치게 하리라 .” 그리고 Mahershalal - haz-baz 라는 이름에는 “ 전리품을 취하고, 먹이를 취하고, 그들을 거리의 진흙처럼 짓밟는다”는 놀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사야에게 앗수르 사람이 죄 많은 이스라엘을 징벌하기 위해 하나님의 손에 들린 도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 아시리아 사람아, 내 분노의 지팡이여.” 6절 “ 내가 그를 보내리라” 주님께서 그를 보내셨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목적의 측면에서 볼 때, 앗수르는 자기 백성을 심판하기 위해 그의 손에 있는 도구입니다.

10장 7-14절에서는 그 반대면을 볼 수 있습니다. 아시리아의 태도, 그녀가 자신을 어떻게 생각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어찌하여 그 뜻이 그렇지 아니하며 그 마음이 그렇게 생각하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나 그의 마음에는 여러 나라를 멸망시키고 끊어버리려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가 말하기를 '나의 고관들은 다 왕이 아니냐? Calno는 Carchemish와 같지 않습니까 ? 하맛은 아르밧과 같지 아니하냐? 사마리아는 다마스쿠스와 같지 않습니까? 내 손이 우상의 나라들을 찾았고 그 조각한 신상들이 예루살렘과 사마리아보다 뛰어났은즉 나도 사마리아와 그 우상들에게 행한 것 같이 예루살렘과 그 우상들에게도 행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시온 산과

예루살렘에 그 모든 일을 행하신 후에 내가 앓수르 왕의 마음의 강건함과 그 눈의 영광을 별하리로다' 그가 말하기를 '내가 내 손의 힘으로 했다'고 하였느니라.” (여기서 “나”와 “내 것”을 모두 주목하십시오). “내가 내 손의 힘과 내 지혜로 이 일을 하였나니 이는 내가 총명함이라. 나는 백성들의 경계를 허물고 그들의 보물을 약탈했으며 용사처럼 그 주민들을 쓰러뜨 렸습니다 . 그리고 내 손이 사람들의 재물을 보금자리처럼 얻었고, 남은 알을 모으듯 온 땅을 모았 느니라 . 날개를 움직이거나 입을 벌리거나 엿보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앓수르 편에서는 하나님의 주권을 의식하고 하나님의 손에 들린 도구가 되기보다는 자신을 주권자, 전능자로 여깁니다. 상황은 앓수르가 자신이 하나님의 고용 아래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7-11절에는 이사야 시대에 무너졌던 장소들을 언급하는 장소들의 목록이 있습니다 : 갈노 , “ 갈그 미스와 같지 아니하냐 ?” 기원전 738년에 “하맛은 아르밧과 같지 아니하냐? ” 하맛은 기원전 720년에 함락되었다. 사마리아, 기원전 722년 “ 사마리아는 다메섹과 같지 아니하냐?” 다마스쿠스는 기원전 732년에 함락되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은 아시리아가 점령한 이 일반적인 기간의 장소 목록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앓수르 사람은 하나님의 손에 있는 도구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서는 앓수르가 형벌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12절에 보면,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시온 산과 예루살렘에 그 모든 일을 행하신 후에 내가 앓수르 왕의 완고한 마음을 벌하리니 이는 그가 이르기를 힘으로 하리라 하였음이니라” 고 했습니다. 내 손에서.’” 비록 앓수르 사람이 하나님의 손에 있는 도구일지라도 앓수르는 자기의 악한 마음과 교만함으로 행한 일 때문에 벌을 받을 것입니다. 앓수르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를 거부했습니다. 그러므로 그녀 자신도 하나님의 형벌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사야 10:15 - 도끼를 자랑하는 비유 [앓수르] 15 절의 비유는 아름답습니다. 그것이 상황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보면 부조리하기 때문에 거의 미소를 짓게 됩니다. 15절, “도끼가 어찌 찍는 자에게 스스로 자랑하겠느냐? 아니면 톱이 그것을 흔드는 자에게 자기 자신을 확대하겠습니까? 마치 지팡이가 그것을 들어 올리는 자를 향해 흔들리는 것과 같으며, 지팡이가 나무가 아닌 것처럼 스스로 올라가는 것과 같으니!” 아시리아가 바로 그런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앓수르는 여호와의 손에 있는 지팡이였습니다. “도끼가 어찌 찍는 자에게 스스로 자랑하겠느냐?” 아시리아가 바로 그런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도구가 그것을 쥐고 있는 자에게 스스로를 높이겠느냐? 물론 대답은

“아니요, 그건 터무니없습니다.” 입니다.

이사야 1-16-19 - 앓수르의 멸망에 대한 숲의 형상 그 결과는 16-19절에 있습니다. 그리고 16-19에서 당신이 가지고 있는 것은 숲의 그림 아래에 있습니다. 이사야는 앓수르 제국에 닥칠 형벌과 멸망을 보여줍니다. 그 숲은 베어질 거예요. 16절, “그러므로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 살진 자들 중에 파리 하게 하시며 그리고 그의 영광 아래서 그는 불이 타는 것 같은 불을 붙일 것이다. 이스라엘의 빛은 불이 되고 그의 거룩한 자는 불꽃이 되리라. 그리고 하루에 그의 가시덤불과 찔레를 태워 먹을 것이며, 그의 숲과 기름진 밭의 영광을 영혼과 육체 모두 멸절시킬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기수가 기절한 것과 같을 것이다. 그 숲의 남은 나무는 어린아이도 쓸 수 있을 만큼 적습니다.” 아시리아는 파괴될 이 거대한 숲으로 묘사됩니다. 앓시리아에 심판이 임할 것이다.

이사야 10:20-23 남은 자들이 돌아오다 20-23절을 보면 이스라엘은 믿음이 없는 외세를 항상 의지하지 않고 여호와를 의지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심판을 내리실지라도 앓수르의 손을 통해서라도 남은 자들이 돌아와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20~23절입니다 . “그 날에는 이스라엘의 남은 자와 야곱 집의 피난한 자들이 다시는

자기들을 친 자를 의지하지 아니하리라.” 그들은 어떤 외세의 세력도 신뢰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들이 다시는 자기들을 친 자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오직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 여호와를 진실로 의지하리로다. 남은 자 곧 야곱의 남은 자가 전능하신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이라. 내 백성 이스라엘이 바다의 모래 같을 지라도 그들 중에 남은 자만 돌아올 것임이라. 최종 결정은 의로 가득 차게 될 것입니다.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온 땅 가운데서 완전한 종말을 정하시고 정하신 것이라.”

이사야 10:24-27 - 유다는 앓수르에게 정복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24-27절에서는 심각한 위협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앓수르가 유다를 정복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시고 유다를 그에게서 구원하실 것입니다. 24절에 보면 “그러므로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시온에 거주하는 내 백성이 앓수르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가 막대기로 너를 치며 그 지팡이를 들어 너를 향하여 이같이 하리라 하셨느니라” 고 했습니다. 이집트의. 조금 있으면 분노가 그치고 그들의 멸망에 대한 내 분노가 그치리라.’ ” 곧 앓수르의 멸망이니라. 오렙 의 바위 ’.” (사사기 7장 25 절 에서 기드온이 전쟁에서 살아남은 미디안 방백들을 죽인 바위인 오렙에서 미디안을 치는 일.) 그래서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재앙을

내리시리니 말씀하신 대로 오렙 바위에서 미디안을 학살함 ; 그의 지팡이가 바다 위에 있었던 것 같이 그가 그것을 드는 것이 이집트의 방식대로 될 것입니다.” 즉, 주님께서 홍해를 통해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것처럼, 그들을 앗수르의 손에서 구원하실 것입니다. “그 날에 그의 무거운 짐이 네 어깨에서 벗어지고 그의 멍에가 네 목에서 벗어지되 기름 부음으로 말미암아 멍에가 부러지리라.” 그러므로 심각한 위협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기적적인 방법으로 유다를 구원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물론 바로 그 일이 일어나는 히스기야 시대에 그 일이 다시 성취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사야 10:28-32 - 예루살렘이 가까워지지만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다

10 장 28-32절은 여기서 말한 내용을 요약한 것입니다. 첫째, 당신은 도시에서 도시로 전진하는 아시리아 군대의 도래에 대한 그림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32절에서 절정에 이릅니다. 28절에서 “그가 아얏 에 이르고 미그론 으로 나아가며” 라고 말합니다 . 그는 믹마스 에 짐을 놓아 두었습니다. 그들은 통로를 지나갔습니다. 그들은 게바 에 숙소를 잡았습니다 . 라마는 두려워합니다. 사울의 기브아는 도망한다. 갈림 의 딸아 네 목소리를 높이 라 가련한 아나 뜻아 라이스 에게 들리게 하라 맛메나는 제거되었다. 게빔 주민들이 모여서

도망치느니라.” 그러다가 클라이맥스가 옵니다. “그는 그날까지 아직
 늪에 머물 것이다. 그가 딸 시온의 산 곧 예루살렘 언덕을 향하여
 악수할 것이라.” 그것은 군대가 쳐들어와서, 말하자면 예루살렘
 주변으로 접근하는 모습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하나님께서 개입하실 것입니다.

“보라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무섭게 그 가지를 꺾으시리니 장대한
 자가 찍힐 것이요 교만한 자가 낮아질 것이니라. 그가 철로 수풀을
 베시리니 레바논이 강한 자에 의해 무너지리라.” 예루살렘이 함락될
 것처럼 보이는 바로 그 순간, 당신에게는 하나님의 개입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숲이 베어지고 있는 모습이 보입니다. “ 공포로 가지를
 자르십시오. 철로 수풀의 수풀을 벨 것이요 레바논은 삼림의 상징이요
 큰 자에 의해 무너지리라.

” 이사야 10 장 요약 따라서 5절부터 시작되는 이 10장은 공격의
 의미, 앗수르 제국의 부흥과 성공, 유다에 대한 위협의 그림을
 제공합니다. 앗수르는 자신을 그 도구로 인식하지 못했지만, 앗수르는
 하나님의 손에 있는 도구였습니다. 그러므로 그녀 자신도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당신이 발견한 것은 그 모든 것이 문자 그대로 역사에서
 성취되었다는 것입니다. 아시리아가 유다에 들어왔습니다. 그것은

예루살렘까지 올라갔습니다.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예루살렘을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소선지서 나훔서는 그로부터 100년 후인
 기원전 612년에 니느웨의 멸망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앗수르의 수도
 니느웨는 그 자체로 멸망하고 다시는 국가로 일어나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당신은 거기에 신학적인 개념과 그것이 다루고 있는 역사적
 상황에 관한 놀라운 장이 있습니다.

이 원칙은 아시리아 전역에 걸쳐 적용되지만 우리에게도
 적용됩니다. 주님은 우리를 사용하여 어떤 일을 하게 하실 수 있지만,
 우리는 주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고 우리의 위대한 능력이나 그 일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이 무엇이든 우리가 그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주인을 대적하여 자랑하는 도끼와 같을 수
 있습니다.

평행선이 그토록 강력해 보이는 것은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자,
 여기서 멈추고 다음 시간에 11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1장은 종말론적
 핵심 구절 중 하나이다.

Karis Sawyer 작성, 2009년, Gordon College

Carly Geiman 의 초기 편집

Ted Hildebrandt의 대략적인 편집

Perry Phillips 박사의 최종 편집

페리 필립스 박사 가 다시 해설함

